

‘합계출산율 전국 2위’...강진군, 육아정책 효과 ‘톡톡’

지난해 합계출산율 1.47명...전국비 2배·전남비 0.5명 ↑ 한 아이 당 최대 5천여만원 지원...출산 친화도시 구축

강진군이 2023년 합계출산율 전국 2위를 기록하면서 강진 출산육아정책의 효과를 입증했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통

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산 통계’에서 강진군의 합계출산율은 1.47명으로 최종 전국 2위를 차지했다. 1.47명은 전국 평균 0.72명, 전남 0.97명

을 크게 웃도는 기록으로 2022년(0.89명) 대비 0.58명이 늘어난 수치다. 강진군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지급 및 산후 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육아 정책이 가파른 출산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군은 지방소멸을 저지하기 위해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수에 관계 없이

한 아이당 월 60만원씩 최대 5천40만원 까지 지원하는 육아수당을 비롯해 임신 계획부터 출산·육아 단계까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난자 냉동 시술비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등을 지원하며, 임신부에게는 ▲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진비 ▲임산부 안전벨트 대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출산용품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출산 가정에는 ▲7세까지 육아수당 월 60만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또는 산후조리비 154만원 ▲첫만남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발굴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의 가정이 키우는 게 아니라 사회가 키운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기자



나주시가 최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윤병태 시장을 주제로 2025년도 신규시책 보고회를 가졌다.

(나주시 제공)

“시민 삶 변화 이끄는...” 나주시, 내년 신규시책 발굴 ‘박차’

도심 상가 재휴 할인 지원·공공 작은 결혼식 등 정책 효율성·체감도에 중점...90개 시책 발굴

나주시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 효율성에 중점을 둔 내년도 신규시책을 발굴했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윤병태 시장 주재로 2025년도 신규시책 보고회를 가졌다. 신규시책 보고회는 올해 시책 전반

에 대한 분석에 따른 관행적인 시책 구조 조정과 체감도가 높은 시책 강화 등을 위해 시행된 가운데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선 각 부서에서 발굴한 총 90건의 신규시책 중 국·소·실별 자체 평가를 통해 대표시책을 발굴·공

유했다. 주요 시책으로는 ‘나주시 우수 조달물품 지정등록 건설지원’, ‘원도심 상가 재휴 할인 이벤트 지원’, ‘읍·면·동 소규모 축제 발굴’, ‘상가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매입 수거제’ 등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원 사업이 눈길을 끌었다. ‘소박하지만 알찬 공공 작은 결혼식’, ‘자연마을 및 주요 시설물 알림 노면표시 설치사업’, ‘노인목욕비 및 아·미용권 카드형 전환 지급’, ‘회용 테이크아웃 컵 회수 활성화 추진’ 등 시민 일상

에서 체감도 높은 시책도 다양했다. 윤병태 시장은 부서별 시책에 대한 보완 작업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윤 시장은 “시민의 세금을 가치 있게 활용해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책이 필요하다”며 “발굴한 시책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완하고 사업을 보다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정종환기자

‘제48회 영광군민의 날’ 기념식 성료

군민의 상 수여·e모빌리티엑스포 성공개최 퍼포먼스도

영광군은 8일 “지난 5일 영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48회 영광군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군민헌장 낭독, 군민의 상·행남 효행상 시상과 영광불갑산상사화 축제·e모빌리티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퍼포먼스, 군민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 군민의 상은 봉사단체 촛불회를 결

성해 12년째 활동하며 사회에 온정을 베풀고 영광읍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아 주민자치 문화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한 영광읍 김성운(73)씨와 ‘아너소사이어티 영광 5호’ 가입 등 기부문화 실현하면서 2023년 전남 최초로 여자 검도실업팀을 창단해 체육인의 저변확대에 기여한 군남면 장동우(54)씨가 수상했다. 행남 효행상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시노모를 요양원으로 모시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효행의 근본을 실천한 황경옥(여·58)씨와 지병으로 병원을 다니는 동생을 위해 부모를 대신해 가정의 중시 역할을 하며, 학교에선 쾌활한 성격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 크게 귀감이 된 김태희 학생(여·해룡고 1학년)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기념식에서는 2024년 영광방문의 해를 맞아 다가오는 제2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와 2024 영광 e모빌리티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카드섹션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우리 삶의 터전인 영광발전을 위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준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자랑스러운 영광의 역사를 바탕으로 모두가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협력해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1억4천만 꽃송이 화려한 유혹

신안 병풍도 ‘섬 맨드라미 축제’ 오는 11일부터 전국 최대 규모

신안군은 8일 “오는 11일부터 10월13일까지 3일간 증도면 병풍도에서 ‘정열의 맨드라미의 섬 병풍도’라는 주제로 ‘2024 섬 맨드라미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17.9ha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444만본 1억4천만 송이의 닭벼슬모양, 촛불모양, 여우꼬리모양 등 형형색색 맨드라미가 정원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맨드라미 사진전, 병풍도 사진관 등 각종 문화행사와 워킹플라이트, 카페, 포토존, 푸드존, 쉼터 등 편



신안군은 오는 11일부터 10월13일까지 증도면 병풍도에서 ‘2024 섬 맨드라미 축제’를 개최한다.

(신안군 제공)

의시설 및 먹거리 등 부대 시설을 갖추고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완료했다. 병풍도 맨드라미는 식재 시기를 조절해 9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 첫서리

가 올 때까지 피는 것이 특징으로, 신안군 대표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병풍도의 푸른

하늘과 바다, 드넓은 갯벌이 어우러진 맨드라미정원에서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고 힐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안=양홍기자

목포 시내버스 요금 13.3% 오른다

내달부터 일반인 1천700원·좌석버스 2천400원

목포시는 8일 “연료비, 인건비 인상 등 운송 원가 상승을 반영한 전남도의 버스 운임·요금 조정 결과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인 1천700원(현행 1천500원), 중·고생 1천300원(현행 1천200원), 초등생 850원(현행 750원), 좌석버스 2천400원(현행 2천10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목포시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 정책에 따라 본인 인증이 된 교통카

드를 사용하면 현행대로 100원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버스요금 인상이 시민의 부담이 되는 만큼 BIS(버스정보시스템)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 친절, 안전 운행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목포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20년 9월 이후 4년1개월 만에 인상율은 13.3%이며, 여수·순천시·광양시도 10월1일자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목포=정해선기자

무안군,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농업 육성

아열대작물 9개 사업체 지원 고품질 애플망고 등 본격 수확

무안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농업 육성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아열대농업 육성을 시책사업으로 지정해 애플망고, 체리, 오크라, 롱빈 등 아열대작물을 9개 사업체에서 재배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 지원받은 청계면 소재 ‘망고랑 농장(대표 배삼열·배한나)’은 1.5brix 이상의 고품도 애플망고를 본격적으로 수확해 시장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육성 시범사업’ 수혜 농가로 선정된 ‘농업회사 농바름’에서는 3천300㎡ 규모의

애플망고 하우스를 신축해 현재 약 1천200주 애플망고 묘목을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하기 위한 무농약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애플망고 재배 시설 2개소에 4억5천만원을 지원해 아열대 농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군 온라인 쇼핑몰 ‘맛품무안몰’에 아열대작물을 추석 선물 대표상품으로 내세워 30% 할인 프로모션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적극 지원했다. 이재광 식량원예과장은 “기존의 시설 지원은 물론 애플망고 농가의 상호 정보 교환과 과실의 고품질화를 위한 연구회를 조직·활성화하고 공동마케팅과 브랜드 육성 등 다방면의 지원을 확대해 농가 소득이 정확화·도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성호기자

영양 만점 해남 꿀고구마, 추석 선물로 ‘인기’

고구마빵·말랭이·아이스 군고구마 등 출시...선택 폭 확대

국민 간식 해남고구마가 달콤 포근한 고향의 정을 전하는 한가위 선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고구마는 매년 해남미소 명절 특판전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인기 품목으로, 특히 추석 명절에 선물하기 좋은 제철 농산물로 꼽힌다. 최근에는 기존 생고구마는 물론 고구마를 이용한 가공식품도 다양하게 출시돼 소비자 선택의 폭도 훨씬 넓어졌다. 우선 생고구마는 선별과정을 거쳐 고구마의 크기와 상태, 브랜드별로 다양한 가격과 용량으로 판매된다. 올해 7월부터 수확을 시작한 해남고구마는 밤고구마에 이어 꺾고구마 품종이 주로 수확되고 있다. 밤고구마와 호박고구마의 장점만을 모아 중간정도 부드러운 식감에 당도가 높은 고구마다. 또한 고구마 모양 그대로 만든 고구마빵은 해남고구마에 버금가는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브랜드가 됐다. 좀 더 간편한 간식으로는 고구마 말랭이가 있다. 고구마를 썰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살짝 말리는 과정을 거치면 당분이 농축되고, 부드럽고 촉촉



한 식감이 살아난다. 군고구마를 좋아한다면 아이스 군고구마도 제격이다. 고구마를 깨끗이 세척해 구운 후 급랭한 제품이 아이스 군고구마다. 고구마를 비롯한 고구마 가공식품은 해남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판매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추석 전 배송을 원한다면 9일까지 주문을 마쳐야 한다”며 “문의는 해남미소 (080-859-1100)로 하면 된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기자